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주일 】

전 주	반주자
세례입교식	집례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다함께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55. 주님께 영광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둡고 쓸쓸했던 고난의 긴 밤이 지나고 우리는 마침내 빛으로 충만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힘으로 온 인류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은총이 너무도 고맙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에 절망하던 우리들이오나, 이제는 일어나 다시금 생명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아픔과 눈물이 있는 땅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아웁니다. 이제 그 아픔의 자리에 우리도 서겠습니다.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낙심한 이들이 기댈 만한 든든한 어깨가 되겠습니다. 남보다 앞서 가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음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살전2:19-20 인도자

♠ 교 독 문 62. 부활절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50. 무덤에 머물러 다함께

성경봉독 막16:1-8 박범희 집사

찬 양 유초등부 · 여선교회 · 성가대

말 씬 해가 막 돋은 때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 헌신의 찬송 497.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다함께
- 헌금봉헌 다함께
-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단호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사랑과 정의와 진실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고통도 시련도 무의미한 것일 수 없고, 굳게 닫힌 돌문도 생명을 가둘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복의 매개자가 되라 하신 그 소명을 마음을 다해 받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부활 소식 전하기	에베소서 강해(3)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기도 : 조병주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문영혜 집사 방문성 장로	인도자 이순정 권사

3월	영접위원	한완식	박창운	고사일	유영남	박홍재	이영란
	헌금위원	김철수	김정길	김인걸	조병주	배상순	장혜숙

참 좋은 봄날

● 주님의 마지막 나날을 목상하다가 ‘본분本分’이라는 단어와 만났습니다. 삶이란 하늘로부터 맡겨진(分) 생명의 몫(本)을 힘써 감당해 가는 과정일 겁니다. 논어에는 “군자는 본에 힘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본에 충실한 분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6:38-39a)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4:34)

예수님의 존재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골고다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그런 주님을 ‘괴로웠던 사나이,/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 행복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자기가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과녁을 설정하는 것은 목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불행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 5년 넘게 살아온 집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구석구석 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나는 저녁이면 조금씩 집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온 방만한 삶의 흔적을 보는 듯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작대기를 휘둘러도 걸릴 것 없이 단출한 삶을 희망했지만, 욕망의 부유물들이 이곳저곳에서 얼굴을 내밀고 나를 바라봅니다. 매일 쓰레기통을 정리해보면 자기의 삶이 보인다는 어느 분의 말이 실감납니다.

책도 좀 줄여야 하겠기에 몇 해째 손이 가지 않은 책들을 뽑아냈습니다. 한 권 한 권 구입할 때의 마음이 떠올랐기에, 작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책들을 슈아내 끈으로 묶어 밖에 내놓았

습니다. 때마침 파지를 주워서 연명하시는 동네 할머니가 지나가시기에 그 책 꾸러미를 드렸습니다. 근 10여 꾸러미가 넘는 엄청난 무게의 책을 수레에 실으면서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책은 오직 무게로만 환산되는 종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집안으로 들어섰지만, 마치 지기를 떠나보낸 것 같아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일이라는 게 해도해도 끝이 없더군요. 여러 시간을 들여 정리를 해보아도 일한 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성들이 주로 맡아왔던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화란 발전을 지향하는 직선적인 시간과, 반복을 통해 삶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순환하는 시간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무늬일 겁니다. 그런데 직선의 시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살림살이처럼 밀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대로 순환하는 시간에 익숙한 사람은 경쟁과 발전의 강박관념 속에서 영위되는 직선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사람이 그 두 가지 시간 사이를 조화롭게 왕래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직선의 시간이든 순환의 시간이든 모든 순간은 영원이라는 타래에서 풀려 나오는 실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실들을 가지고 인생의 타페스트리를 짜야 합니다.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영원의 광휘가 깃들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빨리 해치워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여기고 정성을 다하는 이들은 이미 행복합니다.

●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용서하는 것,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 고마움으로 세상과 만나는 것... 냉랭한 세상에 인정의 봄을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봄이 된 사람입니다. 골고다 언덕 높은 곳, 참 생명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지독한 폭력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옷으로 인류의 험벗음을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먼지만 일고 있는 사람들의 팍팍한 가슴에 줄줄거리는 생명의 냇물이 되어 흐르셨습니다. 우리도 그 냇물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 냇물이 이르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겠지요? 참 좋은 봄날입니다.(석)

바람둥이

봄별의 따스한 손길
닿는 곳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면서
산수유와 목련
개나리와 진달래
꽃망을 터뜨리고
게으른 모과나무 가지에도
새싹들 뽀족뽀족 돌아납니다
아직도 깊은 잠에 빠진
능소화와 대추나무
마구 흔들어 깨우려는 듯
황단보도 아랑곳없이 한길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봄바람 맞아
벽돌 담벼락 기어오르는 담쟁이덩굴
움짚움짚 몸을 비뺍니다
(김광규)

* 꽃망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능소화도 대추나무도 봄바람 맞으면 깨어나겠지요?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불어오는 생명의 봄바람을 온몸으로 맞아, 기쁨과 평화의 꽃 활짝 피우는 새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조관행 홍선희 김용진 박효선 박규석
 박경선 김정길 최숙화 이봉옥 정완수 김재광 박영숙 임창성 배삼순
 임 영 정경례 전영순 이유선 방극숙 안정숙 이선림 최인환 박재실
 김준호 곽혜자 임보람

월정헌금:

조병주 최윤희 이용희 박찬정 조항신 전영자

감사헌금:

양재성 김성한 조영순 한상익 정영선 김용길 최영혜 김용해 염혜영
 이정은 김훈동 고숙이 왕성환 김웅래 이해인 김수빈 무명3

생일감사헌금: 전영규 오송경 무명1

구도헌금: 김재흥 김철수 무명1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조 순 덕	연 합 속 회
베들레헬	노 순 옥	정 경 례	배 부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봉 옥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안 길 상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정 현 주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김 희 우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이 수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부활주일** : 할렐루야!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빛 앞에 섭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생이 아름답기를 빕니다.
2. **임원회** : 예배 후 3월 정기임원회가 있습니다.
3. **세례입교자** : 오늘 세례 받고 입교하는 이들(왕수명, 서정순, 최동운, 박인혁)과 유아세례 받는 아기들(최은를, 안혜민, 김경민)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4. **연합속회** : 4월 1일(금) 11시 교회에서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예배인도 - 갈라디아속 식사준비 - 가버나움속
5. **봉사** :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4월 1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6. **장로 은퇴 및 취임** : 다음 주일(4월 3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윤정덕·강인식 장로님 은퇴 및 방문성·한상의 장로님 취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7. **성서이야기모임** :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성서이야기 모임에 많이 동참하셔서, 말씀에 육신을 입히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8. **화분** : 매년 그러하듯이 나오미 선교회원들께서 아름답고 고운 꽃으로 교회를 장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아름다운 바구니** : 유아부에서 영아, 유아, 어린이 물건중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을 필요한 분들과 교환할 수 있도록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의류, 도서, 장난감, 신발, 비디오테이프.. 등등)
10. **신앙실천** : 부활절기입니다. 금주에는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애써보십시오.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 박재실 이성범

* 헌화 : 임영 정경례 집사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